

해외출장결과보고

1. 출장건명 : 정보교류회 해외워크숍 참석

2. 출장목적 : 정보교류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경제관련 국책연구기관 기획조정실장,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KOTRA 등의 정보관련 총괄 담당자로 구성)의 2013년 2분기 해외워크숍 참석

3. 출장기간 및 출장자, 출장지

○ 출장기간: 2013년 5월 15일 ~ 5월 19일(3박 5일)

○ 출 장 자: 선임연구위원 김창길

※ 정보교류회 회원(농촌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연구원, 국토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기조실장 외 KOTRA,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등 13개 기관 15명)이 미얀마 워크숍에 참여함.

○ 출 장 지: 미얀마 양곤

4. 출장일정

일 자	일정 개요	비 고
5.15(수)	18:45 양곤 향발 22:15 양곤 도착 및 취침	KE471
5.16(목)	10:00~12:00 일정 공유 및 사전간담회 15:00~18:00 미얀마 경제사회 워크숍 - 미얀마 경제 및 한-미얀마 경험현황 (박철호 양곤무역관장) - 미얀마 사회/문화 현황 (양곤외대 Myint Myint Maw 교수) 19:00~21:00 만찬 및 워크숍 사후간담회	
5.17(금)	10:00~11:30 미얀마 상공회의소 방문 및 업무협의 14:00~16:00 미얀마 포스코 방문 및 현장시찰	
5.18(토)	10:00~11:30 신성통상(현지 진출기업/봉제업) 방문 및 현장 시찰 23:45 인천 향발	KE 472
5.19(일)	08:05 인천 도착	

주요 출장결과

1. 미얀마 개황(KOTRA자료, 미얀마 농업관개부 자료 활용)

1) 일반 개황

- 미얀마는 왼쪽으로는 방글라데시와 인도, 오른쪽으로는 태국과 중국에 인접하며, 북쪽으로는 히말라야 산맥, 남쪽으로는 벵골과 안다만을 끼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나라로 한반도의 약 3.5배, 남한의 6배로 국토의 약 57%정도가 산림지대이며 전체적으로 긴 꼬리를 가진 가오리 모양의 국가임. 풍부한 천연자원, 약 5,800만 명의 인구, 중국과 인도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인 이점 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미얀마를 둘러싼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가장 큰 배경임.
- 미얀마의 민족 구성은 버마족 70%, 소수족(카친, 카렌, 친, 샨, 껀야, 몬, 라카인) 25%, 기타 중국과 인도계가 5%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언어는 공통어로 미얀마어이고, 종교는 약 90%가 불교, 기독교 5%, 이슬람 4%, 토속신앙 1%로 구성됨.
- 수도는 양곤이었으나, 2005년 11월 미얀마 네피도로 행정수도를 이전함.
- 미얀마 중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1차산업(농업)의 비중은 33.6%, 2차산업(제조업)은 27.6%, 3차산업(무역 및 서비스업)이 38.8%를 차지함.

2) 농업 현황

- 농업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전체경제에서 약 34%를 차지함. 농업인구는 2011년 총인구의 64%를 차지하며, 2010년 농업관개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 토지 면적은 1억6700만에이커 중에 3000만에이커를 농사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남.
- 농업의 중요성 때문에 이른바 미얀마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정권을 포함, 미얀마의 역대 정부는 정권안보 차원에서 벼를 중심으로 한 식량생산 중

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 시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유지했음.

-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쌀을 포함한 주요 곡물은 충분히 생산되나 오랜 군사독재로 인한 비효율적인 경제운용, 서방의 경제제재 등 요인으로 연관 산업이 낙후돼 농업생산성은 극히 낮은 수준임.
 - 미얀마 정부의 농업정책 목표는 농산물 자급자족 및 수출을 위한 생산성 향상, 식량증산을 위한 경지면적의 확대, 농업자유화 및 민간부문의 역할 증대 등이며, 이를 위해 새로운 경지면적 개척, 관개 및 배수시설 확충, 농업기계화 진전, 신농업기술 적용, 종자개량 및 관련산업 활성화 등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음.
 - 미얀마는 식민지 시대 이후 토지소유권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보유하고, 농민들에게는 토지경작권만을 인정하고 있음.
 - 관개용수 공급 확대는 미얀마 벼 생산확대를 위해 중요한 과제로 농업정책의 핵심 분야의 하나임. 관개시설이 작동하는 면적은 전체 농경지의 약 17%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 농업생산성 향상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해 농업기계화 추진도 중요한 정책 과제의 하나임. 미얀마 정부는 농업관개부 산하에 미얀마산업발전위원회를 두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미얀마의 농산물 총 재배면적은 2041만4000헥타르에 달하며 순 재배면적은 1202만3000헥타르로 동일 토지를 여러 번 이용하는 다모작이 일반적이며, 65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됨.
- 남부의 광활한 델타지역, 약 1960km에 달하는 해안선지역, 중부 건조지역, 동서부 산악지역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임. 곡물 재배면적은 전체 경작면적 4307만3000에이커 중 44%를 차지하는 1743만1000에이커에 달하며 특히 벼는 미얀마 경제의 근간으로 경작면적이 전체 경작면적의 39%임.
- 미얀마에 파종 면적 중에 벼 파종 농장이 제일 크며 쌀은 주곡으로서 정부가 사실 상 수출을 독점하는데 비해 콩 등 기타 곡물 및 농작물은 민간에서도 정부의 허가를 얻어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음. 미얀마에서 주로 수출되는 농산물에는 쌀, 콩, 깨, 옥수수, 생고무, 양파, 마늘 등이 있으며 최근 가장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콩임.
- 콩은 쌀과 더불어 미얀마의 주요 수출 농작물 중 하나이며 1987년도부터

콩의 생산과 수출이 크게 늘어났음. 미얀마는 약 17가지 종류의 콩이 생산되며, 그 중 Black gram, Green gram, Pigeon Pea가 콩 수출의 80~90%를 차지함. 또한 콩은 쌀과는 달리 정부의 간섭 없이 농민들이 자유로이 재배해 수출할 수 있음.

○ 미얀마 농업 기계화 현황

- 미얀마 정부는 농업관개부 산하에 미얀마산업발전위원회(Myanmar Industrial Development Committee, MIDC)를 두고 농업기계화를 추진하지만, 재정이 부족하고 일반 농민의 구매력 또한 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농업의 기계화 수준이 저조하고 농민의 노동과 소 등 가축의 힘으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대개의 농민은 물소나 소를 이용한 쟁기질, 씨레질을 하고 우마차를 이용한 탈곡(우마차가 연자매식으로 벳 단위를 계속 돌아 탈곡)하는 원시적 수준에 그침. 그나마 경운기 엔진을 부착한 탈곡기를 이용하지만,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농기계 및 펌프 사용에 제약이 있음.
- 농기계 제조는 농업관개부 산하의 3개의 제조공장과 소규모 민간기업이 하고 있으나, 아직 수입산이 대부분이며 중국에서 이를 공급함.
- 최근 미얀마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농업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11/12 회계연도 기준으로 미얀마의 농기구 및 농기계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농경용 소(Draught Cattle)가 1045만 8000두로 미얀마 농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Spike Harrows 318만 3000대, Plough Share는 307만2000대가 보급됐으며, 현대식 농기계라 할 수 있는 트랙터는 1만2000대, Harvester 2000대, Combined Harvester 310대가 보급됐음. 또한, 아직까지 전체적인 수는 적지만 콤바이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임.

○ 미얀마 비료 사용 현황

- 미얀마는 비료 생산능력이 부족해 농업에 필요한 재료를 대부분 수입하며, 1988년 이전에는 비료와 농약 등 농업투입재의 생산 및 유통, 수입을 모두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만 가능했으나 1988년 시장경제로 전환 후 민간에 개방됐음.
- 그러나 1992~1993년까지 민간의 역할은 미미했으며, 국가산업발전의 부진으로 자체 비료 생산도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렀음. 그 결과 미얀마는 현재까지도 만성적인 비료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요소 비료가 부족해

인산칼리 비료(Phosphoric and acid potash)를 대용으로 사용함.

- 미얀마의 헥타르당 비료 투입량은 30~60kg 수준임. 이는 베트남 285kg, 태국 90kg, 필리핀 130kg, 중국 256kg에 비해 현저히 낮음. 미얀마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1/12년 비료수입량은 2000만 톤으로, 2007/08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미얀마 농약 사용 현황

- Myanmar Agriculture Service 산하에 작물보호과(The Plant Protection Division)를 두고 살충제 관리, 수출상품에 대한 검역, 병충해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함.
- 미얀마 전국의 농약 수요량은 2002/03 회계연도 2875톤에서 2011/12년도 1만1102톤으로 약 4배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농약 수입상에 따르면 농약은 일반무역·국경무역을 통해 들어오며, 주요 수입국은 태국·중국·인도·싱가포르·일본 등임.
- 농약은 콩류·야채 농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주로 만달레이(Upper Myanmar의 특별시), 양곤(Lower Myanmar의 특별시) 지점을 통해 전국으로 유통됨.

○ 한국-미얀마 농업협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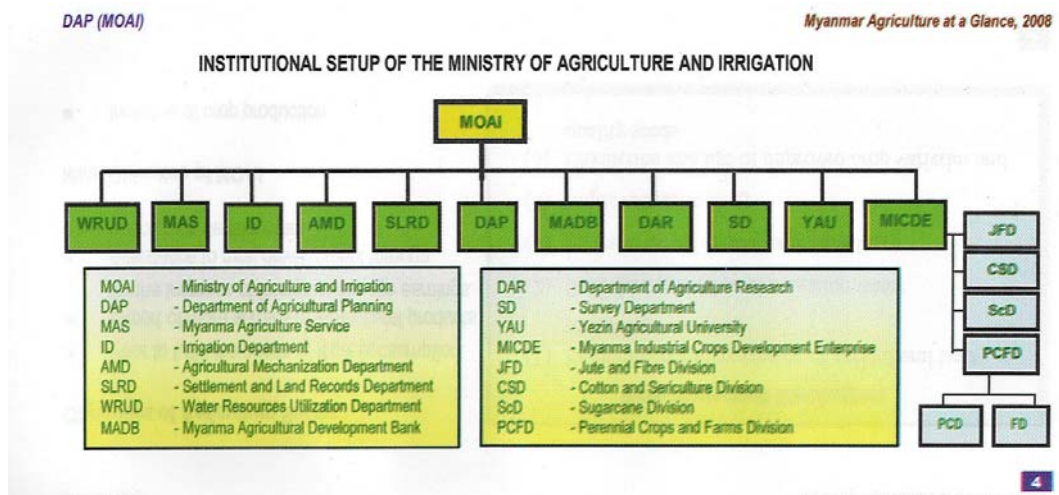
-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2009년 5월 미얀마 농업관개부간 양해각서 체결, 2009년 8월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 미얀마센터(김정태 소장) 운영이 시작됨. KOPIA는 현지 공동연구사업을 통한 농업기술개발 및 맞춤형 기술보급, 현지 국가의 유전자원 활용 신품종 개발, 농업전문가 및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전문가 국내초청 교육 등의 역할을 담당함. 농촌진흥청은 KOPIA미얀마센터를 통해 콩, 녹두 신품종육성과 재배기술 개발, 콩과작물 유전자원 증식과 평가 및 활용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2013년 2월 국제농업협력사업(ODA)의 일환으로 미얀마 네이피도 편마나 시에서 '우수농산물(GAP) 재배기술 전수사업(사업기간: 2011. 12~2013. 12, 사업비: 13억 1,500만원)'을 추진하고 있음. 우수농산물(GAP) 재배기술 전수사업은 2011년 12월 착수하여 201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한국농어촌공사(수행기관: 세계농정연구원)가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는 「GAP기술교육 훈련센터」에서 우수농산물(GAP) 재배기술로 생산한 채소, 과수의 수확물 모두를 전처리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유통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미얀마 농업 관계자 및 농민에게 전수하고 있음. 미얀마 농업관계부는 우리나라의 기술전수에 따라 농산물 우수관리제도(GA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GAP 인증제도 도입과 법제화를 위하여 작년 12월에 관계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1월말에는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는 등 농산물 우수관리제도를 미얀마에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고 함.

※ GAP 재배기술 전수사업의 주요 사업내용

- 시설 구축
 - 비닐하우스 : 300m²(6m×50m), 육묘 및 수경·비가림 재배용
 - 관개시설 : 물탱크 1개소, 수로활용 펌프, 배관 설치
 - 저온저장고 : 91m²(33m², 27m², 31m² 각 1식)
- 건축물
 - GAP 교육센터 : 연면적 258m² (1층 204m², 2층 54m²)
 - 농기계수리 및 보관소 : 60m²
- 시범포 운영 : 5ha(벼 1ha, 채소 1ha, 과일 3ha, 농민교육 실시)
- 기자재공여 : 픽업트럭, 냉동탑차, 트랙터, 경운기 등 13종

<미얀마 농업·관개부 조직도>



2. 미얀마 경제사회 워크숍 결과

- 일시 및 장소 : 5.16(목) 15:00~18:00, 양곤 Sedona 호텔 Ahloon Room
- 발표 주제 및 연사
 - 미얀마 경제 및 한-미얀마 경제협현황: 양곤무역관 박철호 관장
 - 미얀마 사회/문화 개황: 양곤외대 한국어과 교수 Myint Myint Maw
- 주요 내용
 - 미얀마 경제 및 한-미얀마 경제협현황: 미얀마는 30년 이상 군사정권이 폐쇄 정책을 쓴 국가이나, 2011년 민주화 조치 이후 대외개방 정책으로 전환함.
 - 총인구 6천만명, 1인당 GDP는 US\$ 940 수준으로 캄보디아, 라오스와 함께 동남아의 저개발국 중 하나이나 석탄, 구리, 철광석 등 광물자원, 원유자원 및 수산자원이 풍부하며, 동남아와 서남아의 관문이자 다수 국가와 접경하고 있는 등 입지조건이 우수하여, 향후 발전 가능성이 풍부함.
 -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 열풍으로 인해 대 한국 호감도가 매우 높으며, 민주화 전환 과정이 한국과 유사하여 경제발전 노하우 전수 등의 KSP 사업에 미얀마 정부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 6월 중순, 한국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얀마 방문, 한-미얀마 CEO Summit 등 활발한 교류협력 사업 예정되어 있으며, 투자 등 세부적인 액션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음.
 - 미얀마 사회/문화 개황: 미얀마는 불교 중심의 문화(80% 이상의 국민들이 불교 신자임)로서, 불교식 생활풍습이 일반화됨.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 향후 한국과의 문화 교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3. 주요기관 방문 내용

1) 미얀마 상공회의소(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UMFCCI)

- 일시 및 장소 : 5.17(금) 10:00~11:30, 상공회의소 회의실
- 면담인사 : Vice President Dr. Maung Maung Lay 등 6명

○ 주요 내용

- UMFCCI 업무현황 및 조직 소개와 미얀마 산업 및 투자 유망산업 현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미얀마는 농수산업이 대표 산업이며 전력/통신 분야 등 인프라 분야 산업의 저발달로 인해, 개발 여지가 큼.
- 미얀마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환영하고 있으며, 개방 이후 EU, 중국이 미얀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한국의 기술, 자본 투자가 미얀마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되며, 향후 많은 협력을 기대함.

○ 미얀마,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말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비료, 농약, 농기기, 농기계 등) 제품에 수입·판매에 대해 상업세를 면세함.

- 미얀마 재정부는 고시번호 735-2013호(2013. 5. 7)를 통해 미얀마 농업발전을 위해 농업에 사용하는 비료, 농약, 농기기, 농기계 등의 수입·판매에 대한 상업세와 해당 제품의 미얀마 내 제조·생산·판매에 대한 상업세 면세를 발표
- 이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2014년 3월 31일까지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5%의 상업세가 면세됨.

○ 농업부분 상업세 현황

- 상업세는 일종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세금으로 미얀마 내에서 제조·생산된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한 상품에 대해 0~100%의 세금을 부과함.
- 농업 관련 제품은 기호품에 해당하는 담배 등을 제외하고 그동안 면세 또는 5%의 상업세가 부과되었음.

○ 시사점

- 미얀마가 농업부분의 발전을 위해 상업세를 한시적으로 면세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농업제품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므로 관련 기업의 관심이 요구됨.
- 농업기계화 분야는 미얀마 농업관개부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분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이며, 농업 현대화로 농약·비료 사용도 급증하고 있어 관련 분야의 투자 및 진출이 필요한 시점임.

2) 미얀마 포스코

- 일시 및 장소 : 5.17(금) 14:00~16:00, 미얀마 포스코(양곤 시내에서 차량으로 1시간 소요)
- 면담인사 : 김창규 법인장, 이병희 생산관리부장
- 주요 내용
 - 포스코가 미얀마에 진출한 것은 1994년이며, 현 김창규 미얀마 포스코 법인장을 양곤에 파견하면서부터임. 합작선을 찾아 공장을 짓고 영업에 나섰다지만 미얀마의 열악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은 많았음.
 - 미얀마 포스코는 초기 530만달러를 투자하였으며, 1999.1월부터 공장 가동 시작함. 아연도금 골판 및 평판으로 합석지붕 생산중 (대우인터내셔널과 함께 한국기업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업)
 - 가동 1년만에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부터 선발업체인 일본업체를 능가하는 매출 실적을 기록하는 등, 현지화에 성공함.
 - 2000년대 중반, 저가 밀수제품의 수입 및 현지산 제품에 대한 규격 규제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가 있었으나, 현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함.
 - 활발한 현지 광고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20% 수준으로 확대하였고, 고급 제품으로 포지셔에 성공함.
 - 미얀마 정부의 갑작스런 규제로 공장 문을 닫기까지 했으나, 미얀마 포스코가 일본의 선발 업체들을 누르고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기발한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임. 미얀마 포스코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과 20%에 달하는 순이익률을 기록해 포스코 해외법인 및 법인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함.
 - 포스코가 미얀마에서 찾아낸 사업 아이템은 아연도금(합석) 강판이었음. 우기가 긴 저소득 국가였던 미얀마에서는 가격 대비 내구성이 뛰어난 지붕재가 잘 팔릴 수 있다고 판단함. 1997년 포스코와 미얀마 군인복지법인(UMEHL)이 각각 7 대 3의 비율로 320만달러를 출자해 미얀마포스코를 설립함.
 - 당시 미얀마에는 미쓰이 스미토모 등 일본 종합상사 4곳이 일본 철강사 제품을 가공한 아연도금 강판을 팔고 있었음. 일본 상사들은 용광로를 가진 철강사 포스코가 등장에 큰 경계는 하지 않았음. 이는 이미 '재팬 스

탠더드'라는 마크를 붙여서 미얀마 시장을 휩쓸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하던 미얀마 포스코는 2004년 큰 위기를 맞게 됨. 미얀마 정부가 갑자기 두께 0.25mm 이하의 강판은 생산할 수 없다는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임. 두께가 너무 얇으면 녹이 많이 쓴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미얀마 현장 관료들도 이해할 수 없었던 최고 권력층의 즉흥적인 결정이었다고 함.
- 이의 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미얀마 포스코는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함. 2005년 6월 공장 문을 닫고 현지 인력의 90%인 115명을 내보내야 했음. 김 법인장은 해고를 당하면서도 그동안 감사했다고 눈물을 흘리는 미얀마 직원들에게 공장이 재가동되면 반드시 다시 부르겠다고 약속했다고 함.
- 포스코 본사에서 6개월 안에 공장 등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옴. 김 법인장은 당시 포스코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미얀마는 농칠 수 없는 시장이며, 한번 떠나면 다시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2년 안에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함. 이 회장은 '감히' 부장급 직원이 직접 해 온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함.
- 김 법인장은 합작사인 UMEHL 회장을 통해 본사 입장에서 미얀마 포스코는 없어도 되는 작은 공장이나, 태국산 밀수품이 판을 치게 만들면서 수많은 미얀마 국민들을 실업자로 만들어서야 되겠느냐고 하소연했다고 함. 마음을 움직인 미얀마 정부는 규제를 풀었고, 해고 직원들을 복직시킨 미얀마포스코는 2007년 3월부터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함.
- 생산을 재개한 미얀마 포스코의 다음 숙제는 일본 업체들을 따라잡는 것이었음. 우선 아연 코팅을 통해 회색이 아닌 은백색의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고 '슈퍼 스타'라는 브랜드를 활용함.
- 미얀마 최초의 지붕재 TV 광고를 시도함. 광고의 컨셉트는 '슈퍼 스타를 쓰면 이웃이 부러워하고, 주택의 격이 높아진다'는 문구였다고 함. 고급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효심이 깊은 미얀마 국민들의 정서를 자극했다고 함.

3) 봉제공장 신성통상

- 일시 및 장소 : 5.18(토) 10:00~11:30

○ 면담인사 : 하성호 경영관리부장

○ 주요 내용

- 신성통상은 연매출 약 1조 2천억원에 달하는 폴햄, 유니온베이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대규모 의류업체로 2010년부터 미얀마에 69개 생산라인을 갖고 있는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음. 전력이 부족하고 임금이 저렴한 관계로, 봉제업체들의 진출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음.
- 양곤에서 약 2시간정도로 80km 떨어진 곳인 바고(인구 7만의 소규모 도시)에 위치하는 곳에 신성통상 미얀마 봉제공장이 위치함. 12개 라인에 지원은 약 2,900명에 달함. 이 가운데 한국인 직원은 10명, 인도네시아 직원 13명이라고 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는 전무하나 미얀마 시장의 미래를 높게 평가하여 한국 봉제업체 중 가장 이른 시점에 진출하였으며, 향후 생산설비 확대 여부도 검토 중임.
- 미얀마 국민들은 매우 성실하여, 봉제업 및 단순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에는 최적조건임.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필두로 물가가 급속 상승하고 있어, 가격경쟁력이 과거에 비해서는 점차 약화되고 있음. 이에, 가격경쟁력 현황에 따라 미얀마 현지 판매까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봉제공장은 3년차이고, 직공들의 급여수준은 약 100달러 정도(90~120달러)이고, 베트남 보다 숙련도가 낮아 보수가 약 30%정도 낮다고 함. 미얀마의 급여수준은 3년전에는 약 45달러 정도였으나 매년 크게 올라가고 있으나, 아직은 최저임금제도나 노동조합 등은 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함.
- 미얀마의 기업운영 여건을 보면 인건비는 동남아 타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아 자가발전으로 1일 약 200만원 정도가 투입되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함. 특히 미얀마는 전력과 수도,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SOC)이 매우 취약하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별도의 인센티브는 없다고 함. 특히 최근 2년간 부동산과 임대료가 크게 인상되고 있어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양곤의 경우 1년동안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약 3배정도(3 배드룸 아파트의 경우 월 임대료가 1,500~2,000달러에서 약 7,000~8,000달러로 급등하였다고 함) 급등하여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함.
- 미얀마의 최대 매력은 현재까지 값싼 노동력으로 노동집약적인 봉제산업으로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 원단을 들여와 단순 가공하는 '임가공' 형태의 생산방식이기 때문에 저렴한 인건비는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

라는 게 업계의 일치된 시각이라고 함. 미얀마에 물류와 전력 등 산업인프라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의류생산기지로 미래가 좋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4. 관찰 및 평가

- 개발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급부상
 - 2011년 3월 테인 세인 정부 출범 이후 미얀마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한국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미얀마 신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자유화와 경제개혁은 2012년 4월 보궐선거와 11월 외국인투자법 개정으로 어느정도 궤도에 진입하여 많은 국가들로부터 투자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
 - 최근 5월 20일 백악관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과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간 47년만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미얀마의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5월 26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얀마 수도인 네피도에서 일본 미얀마 정상회담에서 3조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함. 따라서 향후 주요국의 미얀마에 대한 투자확대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현지 투자진출을 위한 인프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투자진출에 신중 필요
 - 전력, 통신, 도로 등 산업인프라 낙후로 제조업 투자의 단기적 수익성은 낮음. 총 전력발전량은 1,100MW 수준으로 잦은 정전 발생. 특히 산업단지에도 1일 전력공급시간이 2시간 이내로, 자체 발전기 가동 필요(산유국이나 정유시설 부재로 유류비 부담이 큼)
 - 육상 물류운송을 위한 도로 시설 노후화로 고가의 물류운송비 소요됨. 이에 따라 항만 인근인 남부 지역 이외에는 산업기반이 취약함.
 -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부재, 금융업 저발달로 투자비용 대부분을 투자자가 확보해야 함. 오랜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외국/외국기업의 현지 진출 움직임을 전반적으로 경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풍부한 지하자원, 입지조건 등으로 높은 잠재력 보유
 - 원유, 광물자원이 풍부하여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음. 천연가스, 석유 등 에너지 자원과 구리, 아연, 텅스텐 등 광물자원 매장량이 풍부하여, 향후 개발

과정에 주의가 촉구됨.

- 중국, 인도 및 아세안 거대 소비시장(태국,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과 접경하고 있어, 해당 지역을 겨냥한 생산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높음.
- 한류 확산 등에 따라, 한국 벤치마킹 움직임도 동시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미얀마 경제개발원(한국의 KDI와 유사), 수출진흥기구(MYTRA) 등 한국의 경제개발 경험 벤치마킹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음.
 - 기관별 현실에 맞는 상호 교류협력 프로그램 개발 필요함.
- 미얀마는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질, 고온의 열대기후 등으로 적절한 농업 환경을 보유한 국가임. 농업인구가 전체인구의 60%, 전체산업의 3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래 국가발전을 위해 농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농업분야에서 실질적인 개발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ODA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농업기술 분야와 농업용수, 농자재 분야의 협력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여 기존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진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 미얀마 농업 및 농촌개발을 위해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접근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새마을운동의 국제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정보교류회 워크숍 현장(양곤 세도나 호텔 회의실)>



<양곤 외대 Myint Myint Maw 교수의 정보교류회 주제발표>



<미얀만 상공회의소 방문>



<미얀마 포스코 김창수 법인장 발표>



<미얀마 포스코 사옥>



<미얀마 포스코 함석지붕 생산공장>



<신성통상 사옥, 생산공장, 생산제품>

